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청구논문

장애인 활동보조인 중년여성의
직무만족과 재취업 관계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고혜경

2016年 8月

장애인 활동보조인 중년여성의 직무만족과 재취업 관계 연구




지도교수 심 경 수

고 혜 경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고혜경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審査委員長	남 진열	
委 員	진 관훈	
委 員	심 경수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년 6월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d
Women' s job Satisfaction and Their
Re-employment as Personal Assistants
for the Disabled

Ko, Hye-Kyong

(Supervised by Professor Sim. Kyung-So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2016.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II. 이론적 배경	5
1. 생태체계이론	5
2. 페미니즘이론	8
3. 선행연구	10
4. 용어의 정의	12
III. 연구방법	14
1. 연구모형, 연구문제 및 가설	14
1) 연구모형	14
2) 연구문제 및 가설	15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6
3. 분석방법 및 측정도구	17
IV. 연구결과	19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2. 변수의 신뢰도 분석	22
3.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24

4.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검증	26
5. 조사대상자의 직무만족과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	39
V. 결론 및 제언	41
1. 연구결과 요약	41
2. 제언	43
참고문헌	44
부록	47
Abstract	50

표 목 차

<표 1> 활동보조인 연령별 분포	16
<표 2> 직무만족의 측정과 설문지 구성	18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뢰도 분석	23
<표 5>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25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총체적 직무만족도의 차이	27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자체 만족도의 차이	28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만족도의 차이	30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상 만족도의 차이	31
<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량 만족도의 차이	32
<표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인식 만족도의 차이	33
<표 12> 총체적 만족도 차이검증	34
<표 13> 직무자체 만족도 차이검증	35
<표 14> 근무환경 만족도 차이검증	36
<표 15> 보상의 만족도 차이검증	36
<표 16> 업무량의 만족도 차이검증	37
<표 17> 사회적 인식의 만족도 차이검증	38
<표 18> 조사대상자의 직무만족과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	40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14
-------------------	----

<국문초록>

장애인 활동보조인 중년여성의 직무만족과 재취업 관계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고혜경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에 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경력단절되었던 중년여성의 취업경험에 대한 접근을 하였다. 또한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으로 재취업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다시 취업하고자 하는 중년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아울러 재취업의 관계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활동보조인 291명 가운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50대 중년여성 활동보조인 12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조사하였고 총 127부가 회수되어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의 변인들이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으로의 재취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 하위변수인 직무자체, 사회적 인식이 정부재정일자리 사업이라는 사회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사회서비스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정책의 지원체계와 연결되어 장애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취업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와 함께 주변체계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50대 중년여성이 경력단절 후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으로 재취업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목적의 사회정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지역사회에의 공동체원이 아닌 사회적 약자로서의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생존권과 국민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언론매체와 영상매체에서는 장애인의 범죄피해 소식이 빈번이 보도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분야는 정책, 문화, 법률, 경제, 사회 등의 요소가 포함된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장애인 계층만의 문제로 간주되어졌다. 그러나 21세기는 인구 고령화, 의료발달, 디지털화, 그리고 장애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장애 인구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이달엽 외, 2010).

장애인은 이동능력의 제한, 질병에 대한 취약성,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후유증 등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경제·의료·교육·고용·물리적 환경·심리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다(지호영, 2012). 그리고 장애문제에 대한 개입방향이 근래 들어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애인 사회통합과 그 달성 수단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역시 변화하고 있다.

20세기의 전통적인 장애 패러다임은 장애를 의학적인 결핍이나 문제로 인식하여 어떻게 장애인을 의료적으로 재활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장애를 의료적인 결핍이나 손상으로 인식하는 의료적 관점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사용되었다.

장애인의 경우 자립적 삶이란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자립이란 장애로부터의 자유, 즉 육체적·정신적 장애 그리고 일상 생활영역의 사회적 환경으로 부터의 자유를 전제하기 때문이다(임지선, 2008).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구체화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장애인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자기결정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자립생활 이념은 장애인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장애인 당사자 존중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증장애인에게 지지를 받았으며, 이동권의 투쟁과 자립생활운동을 통해서 장애인 운동이 그들의 권리로써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활동보조 서비스이다(양현일 외, 2012).

1970년 미국 버클리 대학의 신체장애학생 프로그램인 PDSP(The Physically Disabled Student Program)에서 시작된 최초의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의 한 방편으로 비롯되었다(정은수, 2012).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관해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치매·중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애인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김경민 외, 2013).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구 현황은 전체 2,494,460명 중 지체장애 1,295,608명(51.9%), 시각장애 252,825명(10.1%), 청각장애 252,779명(10.1%), 지적장애 184,335명(7.4%), 뇌병변장애 251,543명(10.1%)이다(보건복지부, 2014).

제주지역 장애인구 현황은 전체 33,132명중 지체장애 14,533명(43.9%), 시각장애 4,238명(12.8%), 청각장애 4,307명(13.0%), 지적장애 2,907명(8.8%), 뇌병변장애 3,379명(10.2%), 정신장애 1,211명(3.7%)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15).

이처럼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구 현황에서는 첫번째가 지체장애 51.9%이며 다음으로 시각장애10.1%, 청각장애가 10.1%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지역 장애인구 현황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지체장애가 43.9%, 시각장애 12.8%, 청각장애 13.0%로 나타나고 있다.

활동지원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시설담당자나 가족이 중증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이나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장애인 가족들의 간병에 대한 부담과 요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은 노인이나 환자와 같은 요양 대상이 아니며 간병 및 보호중심의 방식은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2000년 이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 4월에 전국 자립생활센터 10곳에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시범사업의 결과로 2007년 4월부터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전국사업으로 본격화되면서 활동보조인이라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대영, 20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이 가정 및 사회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기타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이 자립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도입의 의의는 첫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 강조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둘째,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급여수준향상 및 제도의 건전성 담보이다. 급여 모니터링, 기관평가 등으로 급여수준향상을 기대하고, 전문 인력확보로 인정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대한다. 넷째, 활동보조인 등의 사회급여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활동보조인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이며, 이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송기영외, 2015).

최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의 품질관리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활동지원서비스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직무만족은 서비스 품질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활동보조인을 단순 봉사자나 도우미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김대영, 2014).

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윤리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직무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삶의 질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이화숙, 2012).

특히 활동보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년여성의 사회경제적 삶을 이해하는 것은 본 연구의 시작으로써 매우 의미심장할 것이다. 중년기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시기로 중년의 전환기 또는 중년의 위기라 일컫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중년기 여성들은 삶의 오랜 기간 동안 가족에게 보살핌을 제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자신의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탁하기 어려운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 있으면서 스스로 독립적인 노년을 마련해야 함을 요구받고 있다(김춘경, 2010). 이를 토대로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 ‘절대생계비의 필요’, ‘자녀교육비 등 생계비 보조’ ‘여가활용 및 노후대책’ 등이다(구명숙 외, 2005).

본 연구를 통해 활동보조인 중년여성의 취업 경험에 대한 접근을 하여, 구체적인 실무와 체험의 보편적인 본질을 확인하고, 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다시 취업하고자 하는 중년여성들의 삶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중년여성 재취업과 같은 사회정책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년여성 활동보조인들의 직무만족 및 직무특성을 파악하여 활동보조인으로 재취업 후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중년여성 재취업이라는 사회복지정책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활동보조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 연구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자체, 근무환경,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이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후 50대 중년여성이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서의 재취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태체계이론

현대사회에서 개인에게 직업은 사회구성원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직업은 생계수단이 되는 동시에 개인의 자기계발과 사회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과학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평균수명도 길어지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중년기 이후의 인생이 길어지면서 중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1970년대 초 Germain에 의해 사회복지학의 이론적 준거 틀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 관점은 인간과 환경을 유리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물리적인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개방체계로 보았다(김선아 외, 2009).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며, 인간과 환경 모두를 통합해서 보는 이중초점으로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발달해가는 ‘환경속의 인간’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생태 체계적 관점이다. 즉 인간과 환경은 분리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한다. 인간은 환경적 자원과 사회적 지지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차혜숙, 2008). 인간은 생활환경속에서 타인과 가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존경과 관심을 주고 받음으로써 자아를 발달시키고 사회의 역할 기대를 적절히 이행하며, 일생동안 타인과 상호의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생존을 보장받고 삶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신중우 외, 2009).

Bronfenbrenner(1979)는 인간발달과정을 분석하는 가운데 체계론적 관점을 확대하여 ‘생태체계(Ecological System)’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성장하는 유기체와 그 유기체가 실제 거주하며 성장 및 변화하는 환경간의 일생동안 일어나는 조절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광범위한 접근법인 ‘인간발달생태학이론(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을 제안하였고, 개인의 생태학적 환경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로 구성하고 이들의 체계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이은혜, 2015).

미시체계는 한 개인이 매일 접하는 가장 가까운 체계로 가족, 친구, 동료 등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예로 개인과 가족구성원의 관계, 개인과 친구와의 관계, 개인과 동료와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중간체계는 개인의 생활에서 접하는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기관과 집, 배우자와 사회복지사, 친구들과 사이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외부체계는 개인이 반드시 직접 참여하거나 직접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발생하는 일들이 개인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부모의 직장, 이웃의 특성, 공공 및 복지서비스, 정부정책, 학교와 지역사회사이의 관계, 사회네트워크, 운송체계, 법, 커뮤니케이션수단, 재창조와 사회생활패턴 등이 될 수 있다. 거시체계는 모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큰 단위의 체계로써 문화, 민족, 경제, 법, 철학, 정치 등이 될 수 있다(도문학, 2015).

Belsky는 Bronfenbrenner의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의 조직적 속성인 체계성(systemness) 또는 전체성(wholeness)의 정도를 기준으로 체계의 유형을 개인체계, 가족체계, 사회와 문화체계로 나누었다. Hobbs(1975)는 생태학의 개념을 인간과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하였고, Germain(1973)은 유기체와 환경이 적응하며 맞추어 가는 것과 동시에 역동적인 평형과 상호작용을 성취해 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하였다. 생태체계적관점이 가설검증보다는 인간의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주고 받는 체계들의 속성과 과정을 규명하는 발견에 의의가 있다(윤기종 외, 2009).

사회사업의 주된 내용이 사람과 환경에 존재하는 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체계간의 연결과 개인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도록 원조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중요해진 우리사회에서 체계이론은 서비스과정의 다면성을 구체화 시켜주는 분석체계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서비스제공과 인간이해의 접근방법을 제공해준다. 생태체계적 관점의 적용을 통해 체계들과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생태적 관점에서 취업영향요인을 설명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이은혜, 2015).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이다. 한편, 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공부문 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의 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준 국가조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 전달 체계로서 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이 혼재하는 활동지원기관을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16).

이와 같이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지원체계와 연결이 되어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제도에 참여하여 업무에 대한 만족과 사회적 인식 등을 참고로 하여 취업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취업이 개인의 선호에 의한 선택보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 체계들과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2. 페미니즘 이론

페미니즘(Feminism)은 여성의 특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란 의미의 라틴어 페미나(Femina)에서 파생된 단어로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비롯되어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페미니즘의 시초는 자유주의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여성주의 또는 여성해방주의로 번역되며 기존의 성별관계를 불평등하게 파악하고 사회내의 여성의 위치를 재정립하며 동등한 성으로서의 여성성을 획득하려는 사회변혁운동은 정치학 뿐 아니라 오늘날에는 문학, 예술, 종교, 매체 등의 모든 문화에 적용되고 있다(김소현, 2008).

현대 한국사회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어머니 세대와 그 이전 세대에 속하는 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자형제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남자 직원에 비해 차별을 받은 것은 물론 결혼과 동시에 퇴직압력도 받았다. 페미니즘 연구는 기존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편견에 도전하고 비판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적으로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실천적 요구에 따라 요청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연숙, 2016).

여성의 재인식은 페미니즘의 본질이다. 페미니즘 운동이 남성주도 사회가 형성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여성의 성적 특징을 재정의 한 점으로 보았을 때 페미니즘은 간과할 수 없는 오늘날 여성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본다. 가장 먼저 대두된 페미니즘 이론은 자유주의이론이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을 바탕으로 여성도 남성과 같은 동등한 인격적 존재이며, 따라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18,19세기에 대두되었다.

서구의 페미니즘 사상은 1960년대부터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수용되고 연구되었다(이미원, 2003).

한국 페미니즘이 민족주의를 무시할 수 없는 보다 절실한 이유는 분단극복과 통일 과제 때문이다. 이미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여성운동이 우리보다 한발 앞섰던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드러난 여성의 주변화 그리고 통일 후 여성적

삶의 피폐화는 페미니즘의 민족문제에의 개입이 얼마나 중요하며, 여기에서 여성 운동이 유효적절한 전략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명료하게 보여 주었다. 그 후,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이 1970년대에 한국에 수용되어 여성 운동과 페미니즘연구를 통해 여성들의 의식을 향상시켰다(정현백, 2001).

본 연구는 여성들의 삶속에서 페미니즘의 흐름과 발전을 이해하고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이 늘어나고, 그 안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발전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계기가 되 고자 한다.

3. 선행연구

선행연구들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연구 및 활동보조인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용자만족도이거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연구이며,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손꼽힐 정도로 적었다.

이광범(2008)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성별이 남자가 여자보다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연령, 학력, 결혼상태, 동거가족구성, 고용상태, 월평균수입, 외부이동시설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김길권(2008)의 연구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평균 3.37(sd=1.095)로 만족정도가 보통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만족도는 활동보조인과의 관계성, 서비스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홍기자(2014)는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영역별 활동지원제도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만족도는 가사활동지원 만족도와 사회활동지원 만족도에서 여자 보다 남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유진선(2015)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풍토의 하위차원 가운데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활동보조인에 대한 기본적 임금 수준 향상 뿐 아니라 임금 이외의 휴가·보상과 같은 포괄적인 복지제도 등의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하였다.

김대영(2014)의 연구에서는 활동보조인은 직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애정이 있을 때 즉, 직장애착이 높을수록 안정적인고용이 제공될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화숙(2012)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수, 직업 안정성 등의 위생요인과 소진, 객관적 직무특성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하여 요인별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근무시간, 직업안정성, 감독, 보수 등이 직무만족의 하위요인

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희정(2010)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과 활동경력, 월 활동시간 이었다. 월 수입으로 월 125만 원 이상인 활동보조인이 그렇지 못한 활동보조인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김희경(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에게 있어서 직무는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직무를 통해 얻게 되는 성취감과 보람에서 행복을 창출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업무 특성상 이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직무만족도는 이용자의 서비스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라고 경력단절 여성을 정의하고 있다(신수진, 2012).

마지(2016)의 연구는 사회서비스분야의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강화 및 취업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2008년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96.5%라는 높은 수료율과 70.6%라는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직종으로는 경리·회계분야가 가장 많으며, 취업률은 마케팅 분야가 가장 높다. 2013년에는 약 20만 9천명의 여성들이 ‘새 일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이 중 10만 8000여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에 성공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활동보조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변인들에 대해 분석 후 직무만족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참고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에 대하여 알아보고 중년여성 재취업이라는 사회복지정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4. 용어의 정의

1) 중년여성

김선경(2011)은 Levinson(1978)의 이론에 근거하여 성인초기와 성인후기 사이의 시기를 중년기로 보았으며 연령과 가족생활주기가 중년기의 정의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하여 만 40-59세에 해당하는 시기를 중년기로 정의하였다.

이복희외(2010)는 ‘중년기 취업여성의 가계경제수준, 자아존중감, 역할적응 및 자아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연구’(2010)에서 40~59세를 중년기로 지칭하고 있다.

이여봉(2012)의 연구에서 ‘중년세대’란 중년이라는 생애 단계적 특성과 더불어 세대라는 개념을 함께 포괄해야 하는 복잡성을 지닌다고 하였고, 40대 중반에서부터 60대 전반까지를 중년으로 포함하고 있다.

신수진(2012)은 연구에서 중년기는 신체적 연령으로는 40-60세를 의미하고, 생활적 연령으로는 가족생활주기의 변화가 급변한 첫 자녀의 사춘기를 시작으로 ‘빈 둥지 시기’라 불리는 자녀양육을 마친 시기나 노부모의 봉양시기, 직장에서의 은퇴시기를 의미하고 있다.

2) 경력단절여성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010)

3)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만 6세~65세 미만인 장애 1급~3급인 자가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인정조사를 거친 후 부여받은 인정조사점수에 따라 활동지원 등급(1급~

4급)이 나뉘게 된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제공내용은 사회활동, 가사활동, 신체활동, 그 밖의 기타서비스 등의 영역으로 장애인이 필요한 욕구에 맞춰 제공한다(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2016).

4) 장애인활동보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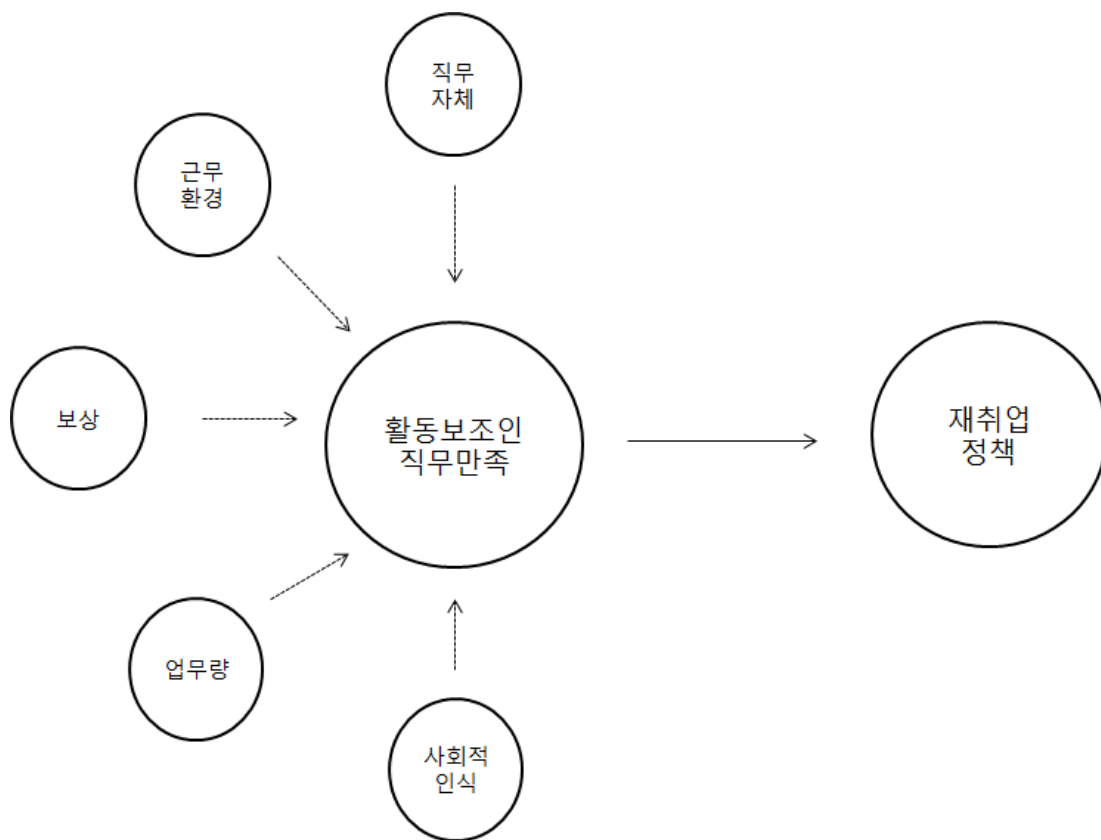
“활동보조인”이란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 인력으로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나이제한은 없다. 교육과정은, 이론 및 실기 교육(공통 과정 20시간+ 전문 과정 20시간)을 한 후 현장실습 10시간을 마쳐야 한다.

단,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는 전문 과정 20시간만 수료하면 된다(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2016).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 연구문제 및 가설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및 가설

(1) 연구문제

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일반적 특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과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2) 가설

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일반적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일반적 특성이 직무자체의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일반적 특성이 근무환경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일반적 특성이 보상의 직무만족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일반적 특성이 업무량의 직무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일반적 특성이 사회적 인식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일반적 특성과 하위변인의 직무만족전체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은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제주지역 활동지원 제공기관(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장애인부모회)중 활동보조인 수가 제일 많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지원센터 소속 활동보조인 291명 중 50대 활동보조인 129명 가운데 128명(1명은 설문기간동안 가족간병 때문 서울거주)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설문대상 선정은 전체 활동보조인 중 44.6%로 활동보조인수가 많이 분포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우편조사 또는 직접면담을 통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127부가 회수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6년 3월29일부터 4월 2일까지 회수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총 127부로 이 중 몇 개의 설문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설문지 포함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활동보조인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활동보조인 연령별 분포

구 분	연령	인원	빈도
활동보조인	20대	5명(남3,여2)	1.7%
	30대	9명(여)	3.0%
	40대	79명(남6,여73)	27.1%
	50대	130명(남2,여128)	44.6%
	60대	61명(남7,여54)	20.9%
	70대	7명(남3,여4)	2.4%
합계		291명	100%

3. 분석방법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직무특성, 근무환경,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 일반적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각 문항을 점수화 하여 SPSS 통계프로그램 18.0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각 변수들을 대상으로 Cronbach's α 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직무특성, 근무환경,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 일반적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직무특성, 근무환경,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직무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지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직무만족의 측정과 설문지 구성

하위요인	문항	문항 수
직무자체	1) 대상자와 하루의 지원활동을 끝내고 나면 보람을 느낀다. 2) 내가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적성에 맞는 것 같다. 3) 내가 활동보조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4) 남들이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일을 성취하는 즐거움을 갖는다. 5) 활동지원업무에 나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문항
근무환경	6) 현재 대상자비율(수)이 적당하다 7) 현재 나의 활동 시간은 만족스러운 편이다. 8) 신규 및 보수교육은 대상자 활동지원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었다.	3문항
보상	9) 나는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노력한 만큼의 적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 10) 나의보수는 다른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활동보조인들과 비교해 볼 때 적당하다. 11)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복지후생에 만족한다.	3문항
업무량	12) 업무량이 많아 피로를 느끼는 일이 종종 있다. 13) 내가 하는 일이 시간적으로 야간 및 새벽근무가 많다. 14) 지원 활동 외 부가적인 잡무가 많다.	3문항
사회적 인식	15) 사람들은 대체로 활동지원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16) 내가 하는 일은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일이다. 17) 활동지원사업은 내게 자극이 되고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18) 활동보조인으로서의 재취업이 내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4문항
	합 계	18문항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제주시지역의 장애인활동지원 수행기관 중 활동보조인수가 제일 많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활동보조인 2016년 3월말 기준하여 291명 중 각 연령대별 인원 가운데 50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여 128명에게 구조화 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127명이 응답하였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50-54세까지 69.3%, 55세에서 59세까지 29.9% 로 50대 초반이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도 28.3%, 중졸이하 16.5%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은 24.4%, 5년 이상 24.4%, 1년 미만 18%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150시간 이상이 48.0%로 가장 높았으며, 100시간이상 150시간 미만 49%,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0.2%로 나타났다.

월 평균수입은 50만 원 미만은 3.9%, 50만 원 이상 75만 원 미만은 25.2%, 75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은 25.2%, 125만 원 이상은 18.1%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자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34.6%로 가장 높았으며, 뇌병변장애 20.5%, 지적장애 22.8%, 시각장애 12.6%, 정신장애 0.8%, 기타 0.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7)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별	50세~54세	88	69.3
	55세~59세	38	29.9
	결측값	1	.8
학력별	중졸이하	21	16.5
	고졸	70	55.1
	대졸	36	28.3
근무기간	1년미만	18	14.2
	1년 이상~3년 미만	44	34.6
	3년 이상~5년 미만	31	24.4
	5년 이상	31	24.4
	결측값	3	2.4
근무시간	50시간 이상~100 시간 미만	13	10.2
	100시간 이상~150시간미만	49	38.6
	150시간 이상	61	48.0
	결측값	4	3.1
월 평균수입	50만원 미만	5	3.9
	50만원 이상~75만원 미만	32	25.2
	75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3	26.0
	100만원 이상~125만원 미만	32	25.2
	125만원 이상	23	18.1
	결측값	2	1.6
대상자 장애 유형	지체장애	44	34.6
	뇌병변장애	26	20.5
	시각장애	16	12.6
	지적장애	29	22.8
	정신장애	1	.8
	기타	9	.7
합 계		127	100%

<표 3>과 같이 전체 응답자 중 연령으로는 50세~54세까지의 응답자가 88명 (69.3%)이었으며, 성별은 전체 활동보조인 중 50대 여 128명(44.6%), 남 2명으로 나타났다. 학력으로는 고졸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 31명 24.4%, 5년 이상도 31명 24.4%이었고 근무시간은 150시간 이상이 61명 48.0%로 나타났다. 월 평균수입은 74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33명 26.0%로 가장 높았으며, 활동보조인이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대상자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44명 34.6%, 지적장애 29명 22.8%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상자 유형에서 볼 때 단일 장애를 가진 대상자도 있지만 중복장애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겠다.

2. 변수의 신뢰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이 활동보조인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이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 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함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적 일관성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직무자체, 근무환경,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이며,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측정기준으로 Cronbach's α 를 이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 측정문항으로 측정된 모든 변수에 대해 신뢰도 분석한 결과를 <표 4>의 도표로 작성하였다. 그 결과 직무자체, 근무환경,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 모두 문항간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무자체가 0.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측정 변수별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보면 직무자체 .808, 근무환경 .685, 보상 .741, 업무량 .558, 사회적 인식 .712로 나타났다. 업무량이 .558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 수준을 보임으로써 차후 분석에 의미 있는 해석을 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뢰도 분석

측정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직무자체	보람	126	4.25	.656	.808
	적성		4.13	.790	
	자랑스러움		3.85	.972	
	성취감		4.09	.800	
	노력		4.52	.576	
근무환경	대상자비율	126	3.70	.966	.685
	활동시간		3.78	1.00	
	교육시간		4.01	.795	
보상	보수	124	3.18	.963	.741
	기관비교		3.35	.776	
	복지후생		3.22	.907	
업무량	피로	127	3.28	.933	.558
	야간근무		4.17	.909	
	잡무		3.71	1.00	
사회적 인식	중요성 인식	125	3.18	.865	.712
	존경받는 일		3.21	.970	
	도전할 가치		3.68	.819	
	삶의 질 향상		3.71	.811	

3.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 수는 127개에 대한 독립·종속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로 설문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는데, 가장 만족한 정도인 매우 그렇다를 5, 대체로 그렇다 4,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로 하여 만족도 척도를 계량화 하였다.

앞서 살펴 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대상으로 <표 5>와 같이 기술통계 분석 하였다.

<표 5>에서 나타났듯이 노력 관계에서 평균값 4.53으로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높은 수치의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활동조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보수 관계에서 3.18로 다른 변수에 비해 낮아 만족도 수준에서 볼 때 환경개선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보람 관계에서도 평균 4.24로 활동보조인들이 직업에 대한 보람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직무만족에도 긍정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종속변수인 직무자체 만족도는 전체 평균값이 3.68로 보통 이상의 만족스러운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직무자체, 근무환경, 업무량, 사회적 인식에서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다. 그 중 직무자체의 보람과 적성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목적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또한 기술통계 분석에서도 4.24, 4.23의 평균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상의 보수 관련에서는 평균 3.18로 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활동보조인들의 급여 수준이 다른 직종의 급여체계와 조금 다른 점도 있고 시급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타 직종과 비교하였을 때도 다소 낮은 수준이어서 만족도 또한 낮은 결과가 나오는 현상이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는 다음과 같다.

<표 5>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직무자체-전체평균		127	2.27	4.87	3.68	.450
직무자체	보람	127	2.00	5.00	4.24	.663
	적성	126	2.00	5.00	4.13	.790
	자랑스러움	127	1.00	5.00	3.84	.971
	성취감	127	1.00	5.00	4.08	.803
	노력	127	2.00	5.00	4.53	.575
근무환경	대상자비율	126	1.00	5.00	3.70	.966
	활동시간	127	1.00	5.00	3.79	1.00
	교육시간	127	1.00	5.00	4.02	.797
보상	보수	127	1.00	5.00	3.18	.971
	기관비교	124	1.00	5.00	3.35	.776
	복지후생	127	1.00	5.00	3.23	.910
업무량	피로	127	1.00	5.00	3.28	.933
	야간근무	127	1.00	5.00	4.17	.909
	잡무	127	1.00	5.00	3.71	1.00
사회적 인식	중요성 인식	127	1.00	5.00	3.20	.873
	존경받는 일	126	1.00	5.00	3.20	.972
	도전할 가치	126	2.00	5.00	3.69	.824
	삶의 질 향상	127	2.00	5.00	3.72	.813

4.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검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총체적 직무만족도의 차이

주요변수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독립변수인 일반적 특성을 중심으로 각각 직무자체, 근무환경,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으로 구성된 종속변수들 간의 차이를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의 결과는 변수의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전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직무만족도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근무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의 평균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월 근무시간, 학력, 월평균수입, 연령의 순으로 만족도를 보였다. 전체적 만족도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이하에서 평균 3.55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인은 교육이수를 한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하고 연령제한도 없다. 이에 따라 학력의 제한도 없어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중졸이하의 학력자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총체적 직무만족도의 차이

변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t / F	유의 확률
연령	50세 이상 54세 이하	3.48	.410	-.151	.880
	55세 이상 59세 이하	3.49	.449		
학력	중졸이하	3.55	.420	.693	.513
	고졸	3.49	.430		
	대졸이상	3.42	.406		
근무 년수	1년 미만	3.44	.401	1.513	.215
	1년 이상 3년 미만	3.57	.417		
	3년 이상 5년 미만	3.37	.475		
	5년 이상	3.48	.366		
월 근무 시간	100시간 이하	3.53	.450	.148	.863
	100시간 초과 150시간 이하	3.47	.478		
	150시간 이상	3.47	.366		
월 평균 수입	50만원 100만원 미만	3.45	.451	-.828	.409
	100만원 125만원 이상	3.51	.378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자체 만족도의 차이

<표 7>과 같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자체 만족도를 살펴보면 근무연수 1년 이상 3년 미만의 평균이 4.25로 가장 높았고, 5년 이상도 평균 4.2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활동보조인의 근속연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3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직무 자체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자체 만족도의 차이

변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t / F	유의 확률
연령	50세 이상 54세 이하	4.14	.615	-.477	.437
	55세 이상 59세 이하	4.20	.498		
학력	중졸이하	4.07	.754	.633	.232
	고졸	4.21	.514		
	대졸이상	4.11	.594		
근무 년수	1년 미만	4.09	.783	1.433	.236
	1년 이상 3년 미만	4.25	.534		
	3년 이상 5년 미만	4.00	.560		
	5년 이상	4.23	.485		
월 근무 시간	100시간 이하	4.22	.662	.480	.620
	100시간 초과 150시간 이하	4.10	.622		
	150시간 이상	4.19	.524		
월 평균 수입	50만원 100만원 미만	4.11	.604	-.998	.320
	100만원 125만원 이상	4.22	.547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만족도의 차이

<표 8>과 같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근무연수에서 1년 미만 3년 이상에서 평균 4.02로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수입도 3.90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동보조인이 활동하는 시간이 만족스러우면 근무연수가 높아지면서 월 평균수입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만족도의 차이

변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t / F	유의 확률
연령	50세 이상 54세 이하	3.84	.739	-.207	.250
	55세 이상 59세 이하	3.81	.695		
학력	중졸이하	3.79	.686	.271	.763
	고졸	3.80	.758		
	대졸이상	3.90	.688		
근무 연수	1년 미만	3.76	.651	1.618	.189
	1년 이상 3년 미만	4.02	.668		
	3년 이상 5년 미만	3.69	.813		
	5년 이상	3.74	.728		
월 근무 시간	100시간 이하	3.76	.549	.097	.908
	100시간 초과 150시간 이하	3.82	.830		
	150시간 이상	3.85	.681		
월 평균 수입	50만원 100만원 미만	3.77	.778	-1.049	.296
	100만원 125만원미만	3.90	.642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상 만족도의 차이

<표 9>와 같이 보상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검증을 살펴보면 50대 후반의 연령에서 평균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 근무 시간이 100시간 미만인 경우가 평균 3.54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재의 보수와 노력한 만큼의 적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상 만족도의 차이

변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t / F	유의 확률
연령	50세 이상 54세 이하	3.24	.692	-.210	.657
	55세 이상 59세 이하	3.81	.786		
학력	중졸이하	3.34	.718	.460	.632
	고졸	3.26	.776		
	대졸이상	3.16	.604		
근무 년수	1년 미만	3.22	.717	.752	.523
	1년 이상 3년 미만	3.37	.677		
	3년 이상 5년 미만	3.12	.819		
	5년 이상	3.22	.679		
월 근무 시간	100시간 이하	3.54	.772	1.676	.191
	100시간 초과 150시간 이하	3.20	.699		
	150시간 이상	3.20	.712		
월 평균 수입	50만원 100만원 미만	3.24	.678	-.183	.855
	100만원 125만원 이상	3.26	.776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량 만족도의 차이

<표 10>에서와 같이 월 근무시간 100시간 미만일 때 평균 3.91로 나타나 업무량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졸이상의 학력이 높게 나타났다. 업무량의 조사는 업무량이 많아 피로를 느끼는 일이 종종 있다. 서비스 지원 활동 외 부가적인 잡무가 많다는 내용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고학력자가 활동 시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음을 예측할 수도 있겠다.

<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량 만족도의 차이

변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t / F	유의 확률
연령	50세 이상 54세 이하	3.71	.692	-.210	.657
	55세 이상 59세 이하	3.72	.786		
학력	중졸이하	3.47	.813	2.094	.128
	고졸	3.72	.722		
	대졸이상	3.86	.506		
근무 년수	1년 미만	3.55	.908	.736	.533
	1년 이상 3년 미만	3.69	.696		
	3년 이상 5년 미만	3.83	.601		
	5년 이상	3.75	.602		
월 근무 시간	100시간 이하	3.94	.765	1.008	.368
	100시간 초과 150시간 이하	3.67	.718		
	150시간 이상	3.69	.646		
월 평균 수입	50만원 100만원 미만	3.75	.711	.525	.601
	100만원 125만원 이상	3.68	.667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인식 만족도 차이

<표 11>과 같이 사회적 인식 만족도의 차이 분석은 월 근무 100시간 이하의 평균 3.60으로 나타났으며, 중졸이하에서 높게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활동보조인으로서 도전할 가치가 있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만족도를 느끼는 조사대상자들이 많음을 알 수 있겠다. 일반적 특성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도 차이에서는 연령에서 F값은 -0.69이며, 유의수준 0.024($p < 0.05$)로 연령에 따라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인식 만족도의 차이

변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t / F	유의 확률
연령	50세 이상 54세 이하	3.45	.410	-.069	.024*
	55세 이상 59세 이하	3.49	.449		
학력	중졸이하	3.65	.614	1.453	.238
	고졸	3.44	.606		
	대졸이상	3.35	.730		
근무 년수	1년 미만	3.30	.679	.474	.701
	1년 이상 3년 미만	3.50	.712		
	3년 이상 5년 미만	3.44	.572		
	5년 이상	3.49	.614		
월 근무 시간	100시간 이하	3.60	.619	.752	.474
	100시간 초과 150시간 이하	3.47	.712		
	150시간 이상	3.39	.601		
월 평균 수입	50만원-100만원 미만	3.46	.635	.140	.888
	100만원-125만원 이상	3.44	.667		

* $p < 0.05$

7) 주요변인들 간의 일반적 특성과의 차이검증

첫째, 연령은 학력, 근무시간, 월평균 수입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연수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은 낮아지고 근무연수가 길어질수록 직무만족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력은 월 근무시간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력이 높을수록 월 근무시간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근무연수와 월평균수입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근무연수, 월 평균수입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넷째, 직무특성은 근무연수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연령, 학력, 근무시간, 월 평균수입에서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월 평균수입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직무자체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2>과 같다.

<표 12> 총체적 만족도 차이검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직무특성	3.60	.531	1					
연령	1.30	.462	.007	1				
학력	2.13	.652	.103	-.223	1			
근무연수	2.62	.1.01	-.017	.008	.038	1		
월근무시간	2.33	.716	.000	-.126	-.078	.360	1	
월평균수입	1.44	.498	.031	-.127	.025	.0193	.713	1

다섯째, 직무자체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직무만족 차이는 <표 12>와 같다.

분석결과는 학력에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고학력자가 직무만족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의미와 부합된다. 아울러 연령, 근무연수, 근무시간, 월평균 수입은 직무자체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자체가 보람도 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표 13> 직무자체의 만족도 차이검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직무자체	3.92	.802	1					
연령	1.30	.462	.063	1				
학력	2.13	.652	-.013	-.223	1			
근무연수	2.62	1.01	.012	.008	.038	1		
월 근무 시간	2.33	.716	.037	-.126	-.078	.360	1	
월 평균 수입	1.44	.498	.085	-.127	.025	.193	.713	1

여섯째, 근무환경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직무만족 차이검증은 <표 13>과 같다.

근무환경과의 상관관계를 통한 직무만족 차이검증은 <표14>와 같다.

근무환경에서는 연령과 근무연수에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활동시간과 대상자와의 비율이 유동적이지 못하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활동보조인이 월 근무할 수 있는 시간도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 나름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을 위해 제한을 두는 요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학력, 근무연수, 월평균 수입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4> 근무환경의 만족도 차이검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근무환경	3.69	.867	1					
연령	1.30	.462	-.099	1				
학력	2.13	.652	.118	-.223	1			
근무연수	2.62	1.01	-.056	.008	.038	1		
월근무 시간	2.33	.716	.141	-.126	-.078	.360	1	
월평균 수입	1.44	.498	.102	-.217	.025	.193	.713	1

일곱째, 보상과의 직무만족도 차이 검증은 <표 15>와 같다.

보상은 연령과 근무연수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근무연수가 높아질수록 복리후생과 관련해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여 질 수도 있겠다.

<표 15> 보상과의 직무만족도 차이검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보상	3.22	.755	1					
연령	1.30	.462	-.011	1				
학력	2.13	.652	.130	-.223	1			
근무연수	2.62	1.01	-.020	.008	.038	1		
월근무시간	2.33	.716	.025	-.126	-.078	.360	1	
월평균수입	1.44	.498	.001	-.217	.025	.193	.713	1

여덟째, 업무량과의 직무만족도의 차이검증은 <표 16>와 같다.

업무량에서는 월평균 수입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업무량이 많아 피로가 누적되어 힘들기도 하지만 일하는 만큼의 시간당 급여가 낮은 수준이라 효율성면에서 떨어지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16> 업무량과의 직무만족도 차이검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업무량	3.48	.788	1					
연령	1.30	.462	.105	1				
학력	2.13	.652	.145	-.223	1			
근무연수	2.62	1.01	.037	.008	.038	1		
월 근무 시간	2.33	.716	-.151	-.126	-.078	.360	1	
월 평균 수입	1.44	.498	-.116	-.217	.025	.193	.713	1

아홉째, 사회적 인식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직무만족 차이검증은 <표 17>과 같다.

사회적 인식은 전반적인 특성에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활동 지원제도의 열악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무연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함에 있어서 정(+)적인 관계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17> 사회적 인식과의 직무만족도 차이검증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사회적 인식	3.68	.724	1					
연령	1.30	.462	-.027	1				
학력	2.13	.652	-.044	-.223	1			
근무연수	2.62	1.01	-.029	.008	.038	1		
월 근무시간	2.33	.716	-.018	-.126	-.078	.360	1	
월 평균 수입	1.44	.498	.024	-.217	.025	.193	.713	1

5. 조사대상자의 직무만족과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

앞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으로 설정했고 하위변인 요소는 직무자체, 근무환경,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으로 설정했다.

학력과 연령의 상관관계는 ($r=-.207$ $p<.05$),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졌고, 연령과 근무환경은 ($r=.004$ $p<.05$)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근무시간과 수입은 ($r=.851$ $p>.05$)로 나타났으며, 근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수입과 업무량의 상관관계는 ($r=-.027$ $p<.05$)이나,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졌다. 업무량이 많다고 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근무환경과 업무량은 ($r=.024$ $p<.05$)로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업무량과 보상의 관계는 ($r=.008$ $p<.01$)로 정(+)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이는 업무량이 높을수록 피로감을 느끼는 일이 많다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사회적 인식과 직무만족 전체의 상관관계는 ($r=.741$ $p>.05$)이며, 정(+)적인 관계를 가졌다. 이는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하게 됨으로써 가지는 사회적 인식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직무만족 전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력과 업무량을 제외한 요인들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표 18>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

구분	일반적 특성					직무만족					
	연령	학력	근무 연수	근무 시간	수입	직무 자체	근무 환경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	직무 만족 전체
일반적 특성	연령	1									
	학력	-.207*	1								
	근무 연수	.116	.024	1							
	근무 시간	-.049	-.083	.337	1						
	수입	-.020	-.037	.259*	.851**	1					
직무 만족	직무 자체	.021	.031	.028	.086	.162	1				
	근무 환경	.004	.053	-.038	.140	.153	.472**	1			
	보상	.077	-.082	.754	-.008	.057	.363	.502**	1		
	업무량	.032	.194*	.477	-.125	-.027	.204	.047	.008	1	
	사회적 인식	.009	-.171	.322	-.058	.009	.516**	.424**	.465**	.108	1
	직무만 족전체	.768	-.108	.962	.085	.132	.742**	.741**	.723**	-.142	.762**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년여성 활동보조인들의 직무만족 및 직무특성을 파악하여 활동보조인으로 재취업 후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중년 여성 재취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제주지역 활동지원제공기관 중 활동보조인수가 제일 많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지원센터 소속 활동보조인 1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16년 3월29일부터 4월2일까지 우편조사 또는 직접면담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총128부 중 127부를 수집하여 이 중 몇 개의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설문지 포함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ANOVA,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50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이유는 전체 활동보조인 중 비율(44.6%)이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력은 고졸이 55.1%로 제일 많았고, 근무연수는 3년 이상 5년 미만과 5년 이상 각각 31%로 전체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수입은 75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33%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구가 전반적으로 중년여성으로써 결혼과 출산으로 육아와 가사활동 때문에 경력단절 되었던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활동보조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은 바로 장애인의 삶의 질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영향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활동보조인의 직무특성 정도에서 노력이 평균 4.53으로 나타났고 이는 활동지원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인 활동보조인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에서도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삶의 질도 많은 부분 향상되고 있다는 점도 평균 3.72라는 수치로 보아 직무만족과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활동보조인의 근무환경은 근무연수가 대체적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에서 활동하는 분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년 이상 활동 중인 자도 24.4%로 장기근속의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보상의 측면을 살펴보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활동보조인들과의 비교에서 평균 3.35%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장기근속자의 경우 장기 근속수당 지급 등 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상체계가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이 있음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겠다.

다섯째, 업무량에 있어서 업무량이 많아 피로를 느끼는 일이 종종 있다고 답변한 경우도 평균 3.35%로 나타났고,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횟수의 비율적인 측면에서 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있는 점에 기인하여 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설명하자면 여러 서비스 이용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근로기준법상의 1일 근로시간 8시간 준수를 위하여 장시간 근무는 할 수 없음에 근로시간 연장은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다. 그로 인하여 월 근무시간과 직무만족과의 차이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사회적 인식은 전반적인 분석결과는 부(-)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또한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기능력을 발휘하고 꾸준히 노력하며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직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할 때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이며, 활동보조인으로서의 재취업이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결과도 사회적 인식과의 기술통계를 통한 만족도 차이검증에서 볼 수 있었다.

2. 제 언

첫째,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군으로 인식개선 및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연의 취지와는 어긋난 도우미처럼 인식을 함으로써 장애인과 활동보조인간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인 교육 이수를 통한 인력선발기준에서 자격시험제도로 전환하여 보다 전문적인 직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장애인활동보조인은 근무여건과 복리후생이 열악하다. 현재 책정되어 있는 활동보조인의 시급은 6,800원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요양보호사와 비교를 해도 시급이 1,000원정도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활동보조인은 월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서 4대 보험료도 공제하고 나면 실 수령액은 원하는 만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4대 보험 가입과 퇴직연금 적립 등 가입여부를 관리 감독 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마저도 지급을 제때에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업안정성과 보상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으로의 재취업이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은 앞서 본 직무만족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활동보조인이라는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직업이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사회 정책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더욱이 활동보조인들의 직무만족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민지(2014).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국가인권위원회(2014). 「2014년도 장애인인권증진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금희정(2010). 「장애인활동보조인 직업의식과 직무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김경민·가용현·장세철(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한·일 연구」. 日語日文學 第58輯. pp.275~292.
- 김길권(2008).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시소재 장애인복지관의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김대영(2014).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특성에 따른 직장에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 김선경(2011). 「중년여성의 사회참여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김선아·백경숙·백선복 외 6인(201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대왕사.
- 김소현(2008).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김은희(201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소진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김지아(2013).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여성주의 다큐멘터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희경(2013). 「장기요양기관 직무환경이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도문학(2014). 「노인자살의 생태체계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살 고위험군 노인 선별을 위한 ROC Curve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마지(2016).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 박현순(2009)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본 기혼여성과 한부모여성의 취업영향 요인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백은령 외 3인(2008).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 대왕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hw.go.kr).
- 보건복지부(2016).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
- 송기영 · 안원철(2015).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Technology Vol. 1, No. 3, PP.31~45, August 31, 2015.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신중우 · 윤경원 · 이우연(2009).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 동문사.
- 양현일 · 박석돈(2012).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rarch, Vol.16. No. 3, 2012. 9, pp.339-360.
- 여성가족부(2014). 「10만 8천명 경력단절여성“새일센터”통해 취업!」. 보도자료. 4월4일.
- 유진선(2015.)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조직풍토와 조직지원인식이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경진(201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후 장애인 사회통합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카톨릭대학교.
- 이광범(200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이달엽 · 허창덕 · 서인환 외 3인(2010).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복지참여 타당성 분석 및 바람직한 역할 모색」.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이미원(2003). 「다원주의시대 한국의 페미니즘」. 사회와 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제6호. pp.113-136.
- 이미정(2013).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한·일 비교-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16. No. 3, 2013. 12, pp.1-26.
- 이복희 · 박아청 · 이경혜(2010). 「중년기 취업여성의 가계경제수준, 자아존중감, 역할

- 적응 및 자아정체감간의 구조적 관계」.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10, Vol. 24, No. 1, pp.103~120 .
- 이여봉(2012). 「중년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베이비붐 세대아 이전세대」. 가족과 문화. 제24집 1호 pp.31~70.
- 이연숙(2016). 「페미니즘과 카톨릭 생명문화」. 카톨릭생명연구소. 인격주의 생명윤리 6권 1호. pp.43~73.
- 이은혜(2015).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 정책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화숙(2012).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임지선(2008).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자기결정의 구성요소와 자기결정의 실현」.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유진선(2015).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조직풍토와 조직지원인식이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병택(2010).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정은수(20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정현백(2001).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연구 창간호. pp.9~52.
- 지호영(20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
- 차혜숙(2009). 「학교사회복지 효과성과 실천방안 연구:중학생 생태체계 만족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하재영(2014).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홍기자(2014).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이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에 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활동보조인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
양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활동보조인 중년여성의 직무만족과 재취업 정책사이의 상관
관계”에 관한 연구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직접 참여자인 선생님들의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자 합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학술적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자료는 비밀보장을 약속드리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 심 경 수

연구자 : 고 혜 경

I.다음은 직무만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빈칸에
 ✓표를 해주십시오.

설문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직 무 자 체	1	대상자와 하루의 지원활동을 끝내고 나면 보람을 느낀다.				
	2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적성에 맞는 것 같다.				
	3	내가 활동보조인이라는 것이 자랑스 럽다.				
	4	남들이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일을 성취하는 즐거움을 갖는다.				
	5	활동지원업무에 나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 무 환 경	6	현재 대상자의 비율(수)이 적당하다.				
	7	현재 나의 활동시간은 만족스러운 편 이다.				
	8	신규 및 보수교육은 대상자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었다.				
보 상	9	나는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 노력한 만큼의 적당한 보수를 받 고 있다.				
	10	나의 보수는 다른 지원기관에서 일 하는 활동보조인들과 비교해 볼 때 적당하다.				
	11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후생에 만 족한다.				

설문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업 무 량	12	업무량이 많아 피로를 느끼는 일이 종종 있다.				
	13	내가 하는 일이 시간적으로 야간 및 새벽 근무가 많다.				
	14	지원 활동 외 부가적인 잡무가 많다.				
사 회 적 인 식	15	사람들은 대체로 활동지원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16	내가 하는 일은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일이다.				
	17	활동지원사업은 내게 자극이 되고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18	활동보조인으로서의 재취업이 내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Abstract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Aged Women' s Job Satisfaction and Their Re-employment as Personal Assistant for the Disabled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ocial Welfare

Ko, Hye-Kyoung

This study is designed to assess the experiences of the career-interrupted middle aged women by means of factor analysis in terms of their job satisfaction as a personal assistant for the disabled. It is also significant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re-employment as a personal assistant and advancement in the quality of a personal life. The aim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comprehend the middle aged women's intent for re-employment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job satisfaction and reemployment as a social policy.

To achieve the goals, 128 currently enrolled personal assistants in their 50s out of a total of 291 at Tamna welfare center were sampled and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127 questionnaires were answered, collected and analyzed.

It was strongly hypothesized that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factors would significantly influence on a re-employment policy, the effects of job creation.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a task itself and a social acknowledgement which are the sub-variables of job satisfaction positively influence on a social policy regarding job creation.

Personal assistants for the disabled provides a wide range of direct

services for the needy population through social supporting systems. Their employment is likely to interact with environmental factors around themselves, and therefore harmonization with the surrounding factors is very meaningful.

As a result, the re-employment of middle aged women in their 50s as a personal assistant after career-interruption contributes to a social policy addressing job cre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